

# 죽은 건축의 넋두리

Monologue of the Dead Architecture

ESSAY

李菘勳 / 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Phil - Hoon

오늘도 이렇게 음습한 무덤속에서 썩어 허물어져내리는 나의 살을 바라보며 속절없이 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게 회칠한 사방의 벽은 한점 빛 없는 칠흑으로 덧입혀져 회벽의 내음만을 간신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알 수 없는 뱀이 뚫어 놓은 구멍으로 벌써 몇번씩 소름돋는 터 싸움 소리가 들립니다.

살아있을적 당신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진 몸, 차라리 이렇게 썩고 뜯기는 것이 오염된 당신의 영혼에 조금의 자극이라도 주어 나의 부활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될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의 아픔은 새 한생을 준비하는 고통이런만

그 옛날 내가 동굴이었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먹을 것을 찾아 으르렁 거리며 광야를 헤메는 술한 허기진 야수들을 피해 당신의 선조는 동굴로 있던 나를 다듬어 그들의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몹시도 추운날 그들은 어렵게 불씨를 구해선 내속에 모닥불을 지피고 잠을 청했으며, 사냥을 풍족하게 해서 흥이 나는 날은 무딘 돌칼로 내살을 깎으며 사냥한 동물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증도 없고 대단한 장식도 없이 그저 피난처로 존재할 때 나는 어린아이의 기쁨을 간직했었습니다.

한그루의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우다 죽고 또 그러한 일이 몇 번씩 되풀이 되는 동안 나는 동굴을 나와 오두막이 되었다가 제법 여러사람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고 당신의 선조는 나를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 속에 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권세자들은 나를 통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심지어는 神의 능력에 도전하는 方法으로 삼았습니다.

커져가는 나의 몸집을 보며 나역시 어깨를 세우고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나 벌써 그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의 발밑을 침식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을 - 어쨌든 나의 몸집은 점점 커져갔고 당신의 선조들은 나를 더 크게, 더 높이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문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예술이란 생소한 어휘가 탄생되었으며 건축이란 말도 만들어 졌습니다. 나의 이름은 '집'에서 '건축물'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제법 여러가지 모습으로 가다듬어졌습니다.

내가 보아도 감탄하리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도 되었으며 그때의 나는 더이상 촌스러운 모습의 동굴이나 원두막이 아닌, 정말 세련된 모습의 '예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내 안은 조금씩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 허물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었을 때 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살을 비비며 웃음과 울음을 나누었는데 예술품이 된 후에는 잘 차려입은 몇몇 사람의 공허한 웃음과 무료함이 내 내부를 침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 수록 나는 점점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유명한 화가와 조각가들이 나의 내부와 외부에 조각과 그림을 덧붙이고 나는 이제 어느덧 '종합예술'의 총아로 각광 받고 있었으며 내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나에게 경배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나는 '주는 것'의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 너희가 너희 가진것에서 줄때 그것은 주었다 할 수 없다. 참으로 좁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주는 때이다. 대체 너희 소유란 것이 무엇이냐? 내일의 필요를 걱정하여 끼고 지키고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또 내일이라고, 순례자를 따라 거룩한 성을 향해 가면서 지나친 조심성을 부려 자취도 없는 모래밭에 빠다귀를 물어 두는 강아지에게, 내일이 무엇을 가져다 줄 듯 싶으냐? 또 모자랄까 걱정함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모자람 아니냐? - 칼릴 지브란 - 그러나 습관과 형식은 결국 내용까지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서히 주는 기쁨 보다 받는 기쁨에 길들여져 갔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를 즐겼으며 이유없이 꾸며지고 높아만 가는 나의 덩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전주곡은 그대에 이미 연주가 시작되었던 것을 - 언젠가였던가 내가 얼마나 그릇되게 홀러왔던가를 깨닫게 해주었던 당신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조아의 전유물이 되어있던 나를 일깨워 다시 '주는 기쁨'을 기억해 내도록 충용했고 나를 뒤덮고 있던 헛된 장식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나의 모습을 되찾도록 도와 주었으며 내 존재의 의미가 몇몇 배부른 이의 예술적 기호의 충족이 아닌, 보다 실제적이고 실존적인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타락해있던 나의 모습에 참회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집어 던졌습니다. 수천 수만년 동안 간직해오던 역사의 꺼풀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근로자를 위해 가장 싸고 튼튼하게 내가 만들어지길 바랐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형태의 내가 진정한 아름다움의 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아름답다는 말 자체의 사치스러움을 나는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잊고 있었던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줄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당신들은 나를 살려 낼 수 없습니다.  
 설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피물은 손에 다시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매일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새로운 손에 의해 가능할 겁니다.  
 나를 팔아먹을 물건으로 만들길 사주한 검은 손의 기업가와, 그들의 꼭두각시로 포주처럼, 나를 화장시켜 팔아먹은 당신들이 내걸을 떠나는 날, 부동산이란 오명이 나를 떠나고 다시 건축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하는 날 내 영혼은 한 줄기 빛이 이끄는 대로 이 무덤밖을 나갈 겁니다.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

- 요한복음 15장 11 · 12절 -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나는 결국 죽음의 나락으로 한발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가갔다가기 보다는 떠밀려 갔다는게 아마 옳은 표현일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내 속에 각종 기계들을 장치하고 끊임없는 키자람과 부피자람을 하고 있을때,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갔던 당신의 선조들은 조금씩 그런 나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나는 전혀 생소한 사람들에게 의해 똑 같은 모양으로 찍혀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 의해 어떤 모양으로 만들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이 힘들고 피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만 하면.

어차피 아름다움 · 우아함 · 고결함과 같은 단어를 경멸하게 된지 오래니까.

그런데 정말 비참하게도 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덕도없이 비싼 값에 팔려지기 위해 만들어 진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나에 의해 제공되는 안락함조차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 옛날 나를 예술품으로 취급했던 부르조아의 후예들이 이제 기업가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척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추겼던 당신들의 선조가 나를 떠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왜 내 몸에 옛장식들을 다시 달게 되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왜 내 모습이 점점 매춘부처럼 변해가는지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더이상 '건축'으로 불리워지지 않고 '부동산'으로 불리워지며 나의 가치가, 댓가없이 주는 공간과 예술성이 아닌 값으로 매겨지게 되었을때, 당신들이 사는 집조차 주거의 편이성이 아닌 '얼마짜리'가 되어 있을때 내 영혼을 이 음침한 무덤속에서 뱀굴속을 뾰는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중 몇몇은 일그러질때로 일그러진 나의 실체를 찾기위해 나를 부수기도 하고 해체해보기도 하지만 나는 이미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쉽게 팔아먹고 몇푼의 부스르기돈을 챙긴 당신들이 이제와서 나를 살려 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 광경을 우스꽝스럽고 한편으로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는

결례  
 살아 있는 것은  
 마음 뿐이다.  
 마음은

누더기

살아 있는 것은

뼈뿐이다.

오, 비본질적인 것들의

피로움이여

뼈는

갈치레

살아 있는 것은

바람과

산 뿐이다.

그렇게 많은

비단을 감쌌지만

너를 움직이는 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고깃 덩어리 알몸

물건 없는 산

소나무 곁을

혼자서 너는 걸어가고 있고야

오, 작별한 뉘새여

살덩이가

지금 저 산을

내려가고 있고야

- 신동엽 '살덩이' -

당신들은 나를 살려 낼 수 없습니다.

설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피물은 손에 다시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매일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새로운 손에 의해 가능할 겁니다.

나를 팔아먹을 물건으로 만들길 사주한 검은 손의 기업가와, 그들의 꼭두각시로 포주처럼, 나를 화장시켜 팔아먹은 당신들이 내걸을 떠나는 날, 부동산이란 오명이 나를 떠나고 다시 건축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하는 날 내 영혼은 한 줄기 빛이 이끄는 대로 이 무덤밖을 나갈 겁니다.

-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

이 한마디를 붙들고 나는 무릎시런 이 밤을 전달합니다.

-오늘은 그들의 소굴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 신동엽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中'-  
 어차피 나의 시작은 어두운 동굴 이었던 것을...